



차이나

CHINA Market Report

마켓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3

이메일 : beijingk@kita.net

최근 중국-중남미 무역·투자 동향

목차

1. 對중남미 무역 동향
2. 對중남미 투자 동향
3. 시사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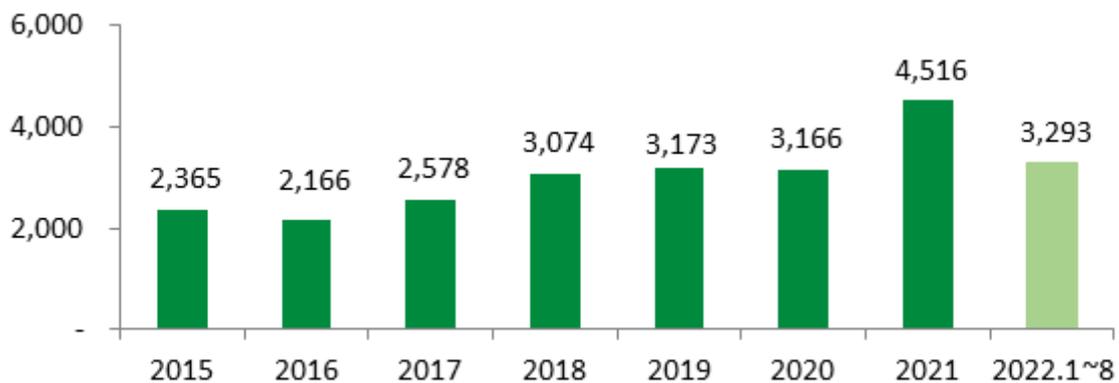
- 중국-중남미 수출입액은 2000년 1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5년 2,365억 달러, 2021년 4,516억 달러로 확대되어 약 38배 증가했고 2018년부터 연간 수출입액은 3,000억 달러 이상 유지
- 중국의 주요 중남미 무역상대국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임
- 중국의 對중남미 상위 무역대상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 식물성제품, 광물성연료 등임
- 중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국가에 에너지와 광물자원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AEI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22년 누적 기준 중국의 중남미 신규투자액은 1,390억 달러를 초과
-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2015년 이후부터 교통, 농업, 금융, 제조, 서비스 등 분야로 투자가 다각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 IT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 ECLAC(유엔 중남미 카리브 경제위원회)는 향후 중남미 국가 주요 무역파트너로서의 중국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중남미 최대교역국인 미국과의 무역액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

1. 對중남미 무역 동향

- 중국-중남미 수출입 규모는 2000년 1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5년 2,365억 달러, 2021년 4,516억 달러로 확대되어 약 38배 증가하였으며 2018년부터 연간 수출입액은 3,000억 달러 이상 수준 유지
-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에서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액 비중은 2000년도 2.7%에서 2022년도 7.9%로 약 3배 증가
-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8월 중국-중남미 상품 무역 수출입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13.1% 증가한 3,293억 달러(비중 7.9%)를 기록
- (수출액) 2022년 1~8월 중국의 중남미 수출액은 1,709억 달러(비중 7.2%)로 전년 동기대비 20.1% 증가
- (수입액) 2022년 1~8월 중남미 수입액은 1,583억 달러(비중 8.7%)로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

2015~2022년 8월 중국의 중남미 수출입총액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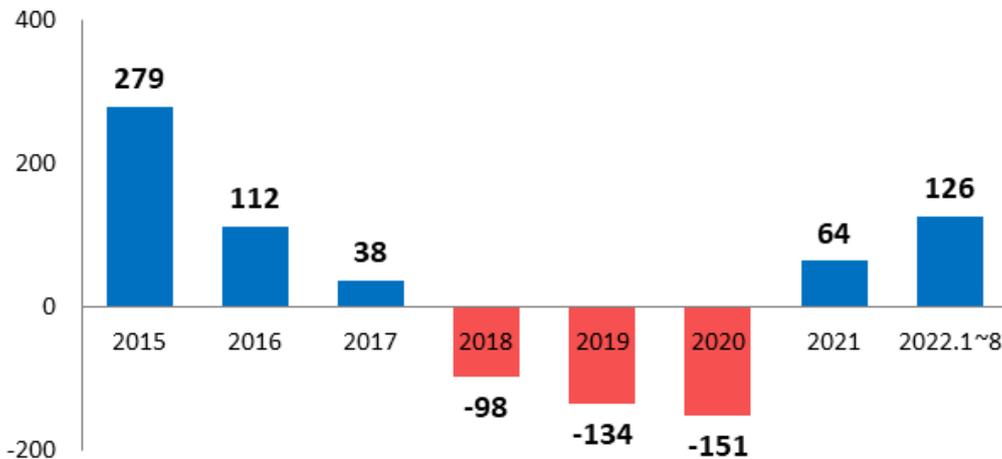


출처 : 中国海关总署, 华经产业研究院

- 2015~2017년 기간에 중국은 중남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8~2020년 기간에는 중국의 중남미 국가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
- 2021년부터 다시 중국은 對중남미 수출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고, 금년 1~8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보다 더욱 커지는 추세를 보임

2015년~2022년 8월 중국의 중남미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출처: 中国海关总署, 华经产业研究院

■ 중국의 주요 중남미 무역상대국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임

- 2022년 1~8월 기준, 중국의 10대 중남미 수출국 수출총액은 1,569억 달러로 전체 중남미 수출액의 91.8% 비중을 차지함
- 2022년 1~8월 기준, 중국의 10대 중남미 수입국 수입총액은 1,538억 달러로 전체 중남미 수입액의 84.7% 비중을 차지함

2022년 1~8월 중국의 TOP10 중남미 수출입 대상국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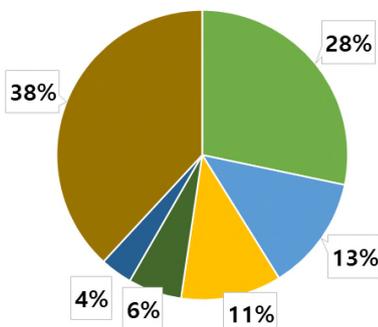
순위	수 출				수 입			
	국가별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별	금액	증감률	비중
1	멕시코	516	22.3	30.2	브라질	750	△2.5	47.4
2	브라질	422	27.8	24.7	칠레	316	20.0	19.9
3	칠레	158	△3.4	9.2	페루	167	6.3	10.6
4	콜롬비아	109	25.7	6.4	멕시코	118	△5.5	7.5
5	아르헨티나	91	37.6	5.3	콜롬비아	49	44.3	3.1
6	페루	91	8.1	5.3	아르헨티나	44	18.9	2.8
7	파나마	85	33.4	4.9	에콰도르	43	23.3	2.7
8	에콰도르	40	16.1	2.4	우루과이	29	46.2	1.8
9	과테말라	29	17.0	1.7	코스타리카	12	133.8	0.8
10	도미니카 공화국	28	15.8	1.6	파나마	10	25.1	0.6
합계	10개국 수출총액	1,569	-	-	10개국 수입총액	1,538	-	-
	전체 수출총액	1,709	20.1	-	전체 수입총액	1,583	6.5	-

출처: 中国海关总署

*주: 비중(%)은 중국의 對중남미 수출입총액 중 해당 국가 수출입액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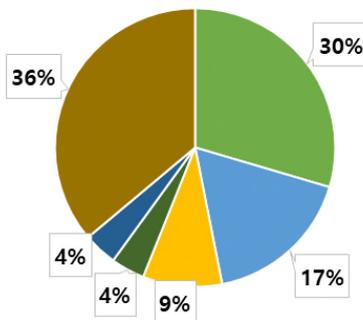
- **(주요 수출국)** 2022년 1~8월 기준 중국의 상위 5개 중남미 수출국은 멕시코(비중 30.2%), 브라질 (24.7%), 칠레(9.2%), 콜롬비아(6.4%), 아르헨티나(5.3%)임
- 對멕시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2.3% 증가한 516억 달러, 對브라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한 422억 달러 기록
- 특히 對아르헨티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7.6% 증가하며 주요 수출국 중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주요 수입국)** 2022년 1~8월 기준 중국의 상위 5개 중남미 수입국은 브라질(47.4%), 칠레(19.9%), 페루(10.6%), 멕시코(7.5%), 콜롬비아(3.1%)임
-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 750억 달러, 칠레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한 316억 달러 기록
- 최근 코스타리카(수입액 증가율 133.8%), 콜롬비아(44.3%), 우루과이(46.2%)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빠르게 증가함
- **(주요 수출품목)** 중국의 對중남미 상위 무역상대국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등임
- 2022년 1~8월 기준, 중국의 對브라질, 멕시코, 칠레 수출품목 1위는 전자기기와 그 부품이며 해당 품목수출액은 각각 브라질 119억 달러(전자기기 비중 28%), 멕시코 152억 달러(비중 30%), 칠레 24억 달러(비중 15%)임
- 중국의 對브라질, 멕시코 수출품목 2위는 기계류 및 부품으로 같은 기간 해당 품목수출액은 각각 브라질 54억 달러(기계류 비중 13%), 멕시코 89억 달러(비중 17%)로 집계
- 중국의 對칠레 수출품목 2위는 차량 및 부품으로 같은 기간 수출액은 19억 달러(차량 비중 12%)를 기록함

對브라질 주요 수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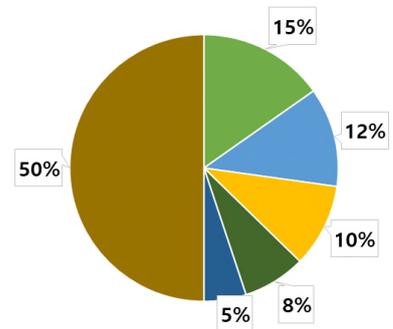
- 전자기기와 그 부품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
- 유기화학품
-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기타

對멕시코 주요 수출품목



- 전자기기와 그 부품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
- 철도/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품
-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기타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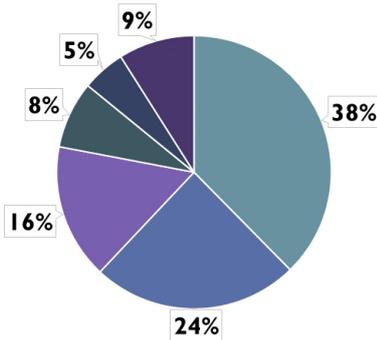
- 전자기기와 그 부품
- 철도/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품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
-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 의류와 그 부품 (뜨개질편물 제외)
- 기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HS 2단위 기준

■ (주요 수입품목) 중국의 對중남미 상위 무역상대국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 식물성제품, 광물성연료, 동과 그 제품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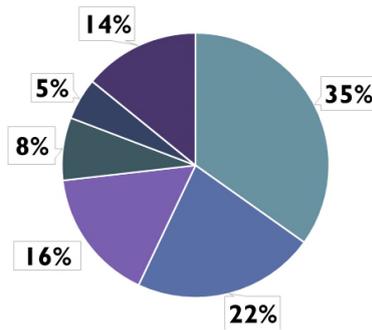
- 2022년 1~8월 기준, 중국의 對브라질 수입품목 1위는 식물성제품(채유용 종자, 과일 등)으로 수입액은 280억 달러(비중 38%)에 달했으며, 對멕시코 수입품목 1위는 전자기기로 수입액은 41억 달러(비중 35%)로 집계됨
- 같은 기간 중국의 對칠레 수입품목 1위는 광물(광, 슬랙, 회 등)로 수입액은 151억 달러(비중 48%)로 집계
- 중국의 對브라질, 멕시코 수입품목 2위는 광물, 對칠레 수입품목 2위는 동과 그 제품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액은 각각 브라질 181억 달러(비중 24%), 멕시코 26억 달러(비중 22%), 칠레 64억 달러(비중 20%)임

對브라질 주요 수입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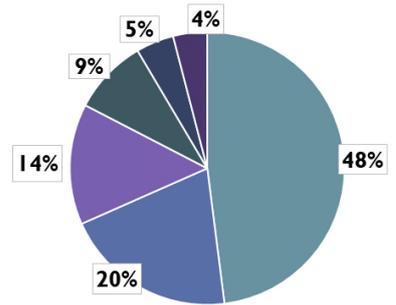
- 식물성제품(채유용 종자, 과일 등)
- 광물(광, 슬랙, 회 등)
- 광물성연료(미네랄오일, 증류물, 역청물질 등)
- 육류(식용설육 등)
- 섬유(목재펠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등)
- 기타

對멕시코 주요 수입품목



- 전자기기와 그 부품
- 광물(광, 슬랙, 회 등)
-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의료용기기 등
- 철도/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품
-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
- 기타

對칠레 주요 수입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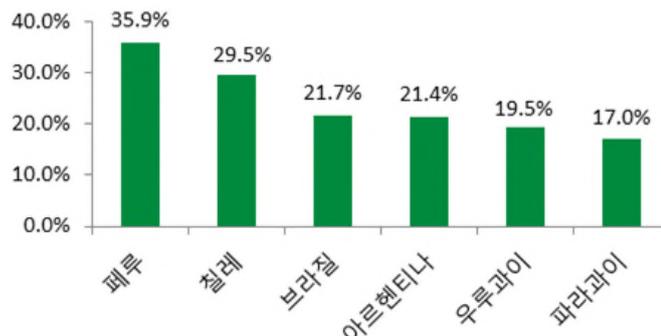
- 광물(광, 슬랙, 회 등)
- 동과 그 제품
- 무기화학품(귀금속 회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등)
- 식용의 과일과 견과류
- 섬유(목재펠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등)
- 기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HS 2단위 기준

■ 2021년 기준 중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우루과이, 쿠바 6개국의 1위 교역국이자, 멕시코,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5개국의 2위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 중남미 주요 국가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¹⁾를 살펴보면, 페루의 중국 무역의존도가 35.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칠레(의존도 29.5%), 브라질(21.7%), 아르헨티나(21.4%), 우루과이(19.5%), 파라과이(17%) 순으로 높았음

주요 중남미 국가의 중국 무역의존도



출처 : Global Trade Monitor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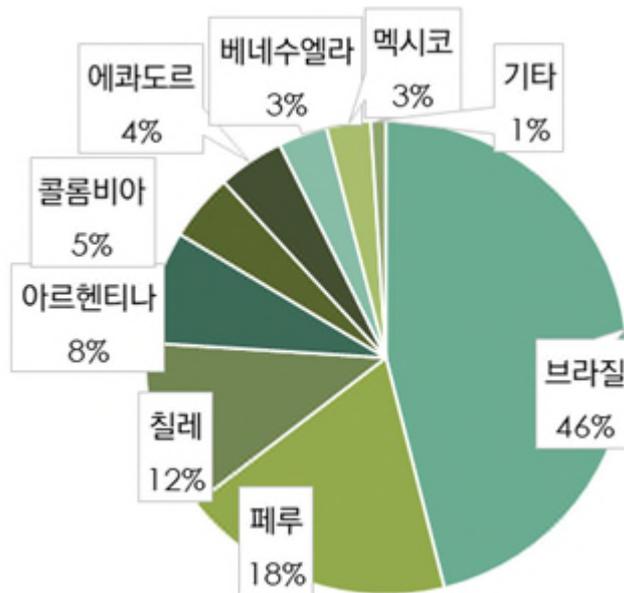
1) 무역의존도란 한 국가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대외의존도 지표로 수출입총액을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 (GNI)으로 나눈 값

2. 對중남미 투자 동향

- 중남미(투자 비중 9.3%²⁾)는 6대륙 가운데 아시아(비중 63.7%)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로 큰 해외 투자 대상 지역으로 자리매김
 -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중국의 대중남미 지역 누적 대외직접투자액(OFDI)은 2,401억 달러를 초과함
- 중국은 대외직접투자(OFDI) 이외에도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국가에 에너지와 광물자원 분야 중심으로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등의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AEI 자료에 따르면 2005~2022년 누적 기준 중국의 중남미 신규투자액³⁾은 1,390억 달러를 초과
 - 2005~2021년 기간 동안 중국은 중남미 지역에 대해 연평균 약 81억 달러 수준의 신규투자를 해왔으며, 2010년부터 투자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년 투자액은 약 232.4억 달러, 2018년 투자액은 약 159.5억 달러, 2021년 투자액은 약 113.3억 달러를 기록
- 2005~2022년 누적 기준, 중국의 중남미 주요 투자 대상국은 브라질(비중 46%), 페루(18%), 칠레(12%), 아르헨티나(8%), 에콰도르(4%), 베네수엘라(3%), 멕시코(3%) 등임

중국 對중남미 주요 투자 대상국 비중(2005~2022년)

단위: %



출처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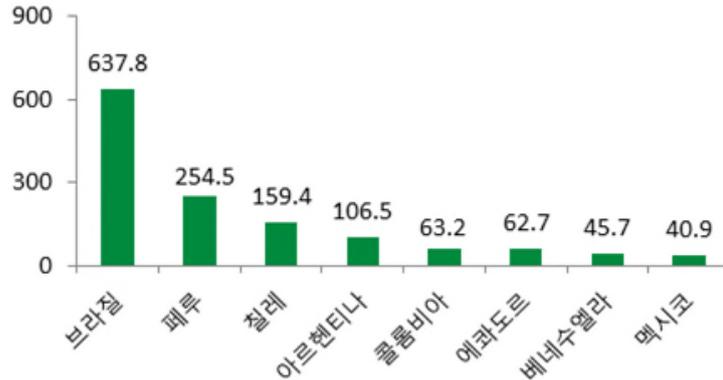
2) 케이맨제도(카리브해 영국령 섬), 버진제도(영국령 섬) 제외

3) 그린필드(Green-field investment, 해외 진출기업이 투자 국가에 직접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형태), 브라운필드(Brown-field investment,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작하는 방식의 투자 형태) 모두 포함

- 2005~2022년 기준, 중국의 브라질 누적 투자액은 약 637.8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페루(254.5억 달러), 칠레(159.4억 달러), 아르헨티나(106.5억 달러)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500억 달러 미만임
- 콜롬비아(63.2억 달러), 에콰도르(62.7억 달러), 베네수엘라(45.7억 달러), 멕시코(40.9억 달러)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00억 달러 미만 수준으로 집계

중국의 對중남미 국가별 누적 신규투자액(2005~2022년)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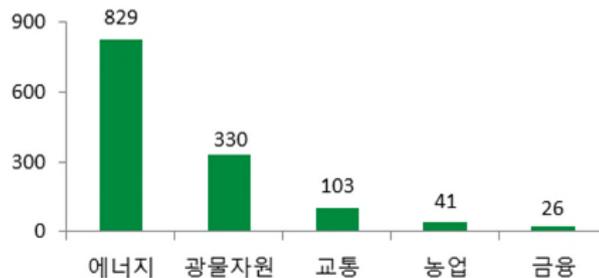
출처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주: 누적 신규투자액에는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투자액이 모두 포함됨

- 중국의 중남미 대규모 투자는 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 집중되어왔으나 2015년 이후부터 교통, 농업, 금융, 제조, 서비스 등 분야로 투자가 다각화되는 양상을 보임
-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중남미 지역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중국의 누적 총 투자액은 308억 달러에 달했음
- 2005~2022년 기간 산업별 중국의 중남미 투자액 비중은 에너지 분야가 60%(누적 투자액 829억 달러)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광물자원 24%(330억 달러), 교통 7%(103억 달러), 농업 3%(41억 달러), 금융 2%(26억 달러) 비중을 차지함

중국의 對중남미 산업별 누적 신규투자액(2005~2022년)

단위: 억 달러



출처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주: 누적 신규투자액에는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투자액이 모두 포함됨

- 2021~2022년도 중국의 중남미 투자 건수는 17개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칠레 투자 건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액은 브라질이 56.6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중남미 국가 주요 신규투자 내역

대상 국가	연도	투자기업(중국)	대상기업(중남미)	부문	투자규모(달러)
브라질	2021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NOOC)	Petrobras	에너지	20.8억
	2021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 (CNPC), CNOOC	Petrobras	에너지	29.4억
	2021	State Grid	CEEE	에너지	5.2억
	2021	Great Wall Motor	Daimler	교통	1.2억
페루	2021	Three Gorges	Luz del Sur	에너지	5.6억
	2020	China Ocean Shipping (COSCO)	-	교통	7.8억
칠레	2022	State Power Investment Corporation	-	에너지	3억
	2022	Sinovac	-	의료	1억
	2022	China Railway Engineering	-	교통	2.7억
	2021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	의료	2.2억
	2021	China Railway Construction	-	교통	8억
아르헨티나	2022	Zijin Mining	-	광물자원	3.8억
	2021	Tsingshan Holding	Eramet	광물자원	2억
	2021	Tencent	-	금융	1억
	2020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Standard Bank	금융	1.8억
멕시코	2022	Jason Furniture	Bacanora	가구	1.5억
	2021	Jiangxi Ganfeng	-	광물자원	2.1억
	2021	Hisense Group	-	가전	2.6억
콜롬비아	2021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led consortium	-	교통	37.9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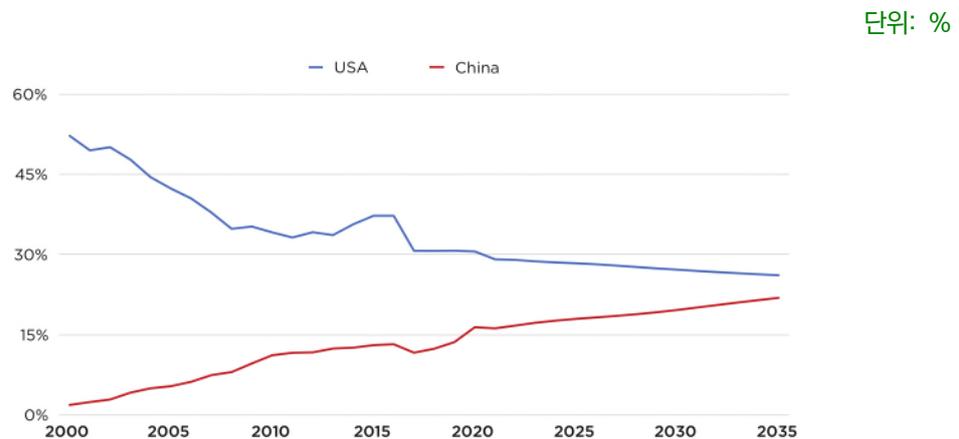
출처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 중국은 자본력이 약한 중남미 국가에 차관을 제공하거나 차관을 향후 수년간 자원으로 대신 상환하는 등의 조건 계약을 통해 여러 중남미 국가와 교통, 건설 등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정부 공사 체결을 확대하고 있음
- 2021년 말까지 중국 기업들은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누적 2,371억 5천만 달러의 정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1,524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21년 한해에만 199억 8천만 달러의 신규 정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79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 2005~2022년 누적 기준 중국의 중남미 신규 건설 프로젝트 계약액은 546억 달러를 초과함

3. 시사점

- 중남미 국가는 중국의 산업 원료 주요 공급처이자, 중국 기업의 해외 입지를 다지는데 중요한 전략적 거점국으로 중국-중남미 국가 간 경제 무역 협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임
- ECLAC(유엔 중남미 카리브 경제위원회)는 향후 중남미 국가 주요 무역파트너로서의 중국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중국의 무역액이 확대되어 중남미 최대교역국인 미국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질 것으로 전망
- 중국이 최근 중남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함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더 커지고 해당 국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할 것으로 예측
- 현재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이며, 최근 1년 이내에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나마, 콜롬비아, 니카라과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공동 타당성 연구 등을 진행하여 무역 협상 체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는 2035년까지 중남미 시장 내 미국의 무역점유율이 감소하고 중국의 무역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중남미 시장 내 중국·미국 무역점유율 전망



출처 : Atlantic Council

- 그동안 중국의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중남미지역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⁴⁾을 구현하는 민간기업의 투자 역할 중요성도 크게 대두됨
- 알리바바(阿里巴巴), 화웨이(华为), 중싱통신(中兴通讯) 기업은 주로 M&A 인수합병을 통해 중남미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중남미 기업 자산을 인수하여 현지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동시에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중국-중남미 투자 증가와 더불어 인프라 특별 대출, 투자 펀드 제공 등 양국 간 금융 방면 협력도 확대되고 있음

4)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전략은 2000년 초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및 다국적 경영을 장려하는 국가 대외전략의 일환임

2022. 11. 9

- 중국은 2005~2015년 기간에 중남미 국가 및 기업에 1,25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Bank)의 최대주주로서 협조융자⁵⁾(Co-Financing)를 통한 중남미 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참여를 확대해왔음
- 2015년 중국은 중남미 국가와 장비 제조 및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중남미 생산협력 투자 펀드를 설립했음
- 최근 디지털 경제 분야가 중국-중남미 서비스무역의 중점 분야로 대두되면서 중국 IT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도 확대 중임
- 코로나 발병 이후 중남미 국가에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재택근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
- 2019년부터 중국 화웨이 기업은 중남미 14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웨이 클라우드의 2021년 중남미 지역의 고객점유율은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하면서 중남미 지역의 네 번째로 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자리매김
- 화웨이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합하여 코로나 보조치료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 서비스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의 여러 병원에서 도입하여 사용되고 있음
-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는 브라질에서 코로나 발병 이후 전세기 운영 및 전자상거래 해외 물류 서비스를 시작



▲화웨이클라우드(브라질)



▲알리익스프레스(브라질)

참 고 자 료

1. 中国商务出版社, 『2020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2021.9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2021.12
3. AEI (<https://www.aei.org/china-global-investment-tracker/>)
4. 华经产业研究院 (<https://www.huaon.com/channel/tradedata/840597.html>)
5. 中国服务贸易指南网 (<http://tradeinservices.mofcom.gov.cn/article/tongji/guoji/202004/102197.html>)
6. 中国网 (http://korean.china.org.cn/2018-12/17/content_74283565_3.htm)
7. 中国社会科学院拉丁美洲研究所 (http://ilas.cssn.cn/xsnews/kynews/201902/t20190219_4832776.shtml)
(http://ilas.cssn.cn/xschengguo/qtchengguo/202111/t20211128_5377610.shtml)
8. 腾讯新闻 (<https://new.qq.com/rain/a/20220609A05MYH00>)
9. 中国信息报 (https://www.zgxxb.com.cn/pc/content/202209/28/content_18678.html)
10. 인민일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746099283378313274&wfr=spider&for=pc>)

5) 협조융자란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주요 다자 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 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것을 일컬음